

무상급식 모두에게 실행하는 것은 옳은가?

컴퓨터 정보(보안) 전공 202310794 김주경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여러 측면으로 문제가 있다. 무작정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무상급식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자녀가 학교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급식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무상급식이 되려 안 좋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기로, 이 기간 동안 올바른 영양 섭취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급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지닌 급식에 문제가 있다면 눈 여겨 보아야할 문제이다.

우선,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무상급식이 급식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다. 유료급식시에도 급식의 질, 위생 등 학생들은 급식으로부터의 불만이 있었다. 무상 급식의 경우 나라에서 급식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리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급식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업체 간의 경쟁이 줄어들게 되고 업체가 독점하게 된다.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복지의 형식이라면 급식업체는 정부에게 급식비용을 과다청구하고 급식의 질을 낮추게 된다. 게다가 저소득층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비교적 올바른 영양섭취를 하기 어렵다. 저소득층의 학생들은 급식의존도가 다른 학생들보다 크다. 그래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타격이 더욱 크다. 또, 부실한 급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급식 수요가 떨어져 급식을 이용하지 않고 밖에 나가 먹는 경우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무상급식: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빈부격차: 빈부격차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경제적 차이를 말한다

두 번째로는 기회비용의 문제이다. 현재 정부는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무상급식의 효과와 사회적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의 무상급식 정책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예산 한정성과 빈부격차 해소의 측면에서 효과가 제한된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예산을 통해 어떤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의 무상급식 정책은 소득 상관 없이 모든 학생에게 주어지고 있어, 해당 예산이 빈곤층이 아닌 다양한 소득 수준의 학생들에게 지원되면 빈부격차 해소의 효과가 상쇄될 우려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상급식에 투자하는 비용이 높은 기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를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 예산 중 일부를 교육 자원, 학습 지원 프로그램, 혹은 금전적 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빈곤층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보다 특화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급식 외의 분야에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기회균형을 추구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 중 "부분적 무상급식은 학생들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몇 가지 관점에서 논의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공개하지 않고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과, 학생들이 빈부격차를 느끼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무상급식의 부분적인 시행이 학생들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 옳을 수 있다. 이는 학생들 간의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부분적 무상급식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급식 혜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무상급식: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빈부격차: 빈부격차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경제적 차이를 말한다

한편으로, 학생들이 빈부격차를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급식보다는 교육, 문화 활동, 학원 등에서의 경제적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식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선별적 무상급식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선별적 무상급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주는 동시에, 소득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급식비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먼저, 선별적 무상급식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학생들에게는 부분적으로 급식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정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적절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별적 무상급식은 급식 업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경쟁적인 입찰 과정을 통해 업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선정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영양 가득한 급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무상급식의 예산을 선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급식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빈곤층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특화된 형태로 지원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선별적 무상급식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무상급식: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빈부격차: 빈부격차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경제적 차이를 말한다

[주도권토론] 안철수 "무상급식 반대?" 오세훈 "부잣집은 자제" / JTBC News

- <https://youtu.be/r-RcSITby64?si=DUNoiKO16w8Npb59>

무상급식: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빈부격차: 빈부격차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경제적 차이를 말한다